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여 미국 전지역에서 Wheaton College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신 Wheaton College는 미국 복음주의 신학에서의 중요한 학교일 뿐 아니라, 복음 전도자 빌리그래함이 졸업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하여 (for Christ and His Kingdom)>가 교훈인 Wheaton College는 1936년과 1995년 등 여러번의 부흥운동을 경험한 곳입니다. 우리들도 코스타 행사를 통해 '역사 속의 부흥'과 더불어, '나의 삶이 바뀐 곳 Wheaton'으로 기억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대망의 코스타 2007, 이제 스무살을 넘어 성숙의 나이로 접어든 KOSTA/USA를 숫자를 통해 소개합니다.

22: 1986년 초 KOSTA (Korean Students in America, 북미 유학생 수양회)란 이름으로 약 200여명의 유학생들이 Washington DC 근교의 Summit Lake에서 모여 "우리는 어디로" 라는 주제로 첫 복음주의 유학생운동 집회를 갖게 되면서 그 첫 걸음을 내딛었던 KOSTA/USA는 올해로 22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5: 2003년 LA지역에서 나이가 다소 어린 청년 학생을 대상으로 열리기 시작한 KOSTA Indy conference가 올해로 5주년을 맞이합니다. 지금 인디애나의 Anderson University에서는 82년 이후에 출생한 우리의 동생들이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1.97: 시카고 컨퍼런스 참석자 중 싱글들의 남녀 비율입니다. 여전히 자매님들이 2배가 조금 안되네요.

282: Kids KOSTA에서 우리와 다르지만 다르지 않은 감정을 경험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많아요.

137: 코스타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조모임 숫자입니다. 소그룹을 통해 부여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98: 섬기시는 강사님을 숫자입니다. 주제강의, 저녁 설교, 개회, 폐회 예배, 다양한 주제의 세미나뿐 아니라 상담으로 조언으로 코스타를 섬겨주십니다. 전 미국에서뿐 아니라 멀리 한국에서 섬김을 위해 달려오셨습니다.

50: Youth KOSTA가 점점 커가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학생 약 45명 선생님 5명으로 유스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새롭게 성장하는 유스그룹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다양한 프로그램과 많은 참석자들, 그 안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나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당신을 이 자리로 부르신 것이 분명합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부흥과 갱신, 우리의 영적인 삶의 성숙, 우리 공동체의 변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

## KOSTA Tip

1. 세미나 등록했는데 바꿀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단 등록 마감되지 않은 세미나에 한해서 매일 아침 7-8시에 Alumni Gym 앞에서 세미나 티켓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2. 아직 등록을 못하셨나요?  
Alumni Gym 등록처에 빨리 문의하세요.

3. 오늘 집회 끝나고 조모임은 어디서 하나요?  
조모임은 조장님 방에서 하시는게 됩니다. 등록 용지에 보시면 조장님의 방 번호가 적혀있습니다.

4. 자원봉사자 신청을 했는데 어디서 안내를 받나요?  
오늘 집회 끝나고 Edman Chapel 앞에서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세미나 자원봉사자 분들은 등록하시면서 이미 안내 받으셨죠?

5. 전체집회 시작하고 내걸 문이 닫힌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코스타 집회 끝나고 나면 100m 달리기 속도가 향상된다는 전설이 흐릅니다. 식사 마치고 빨리 Edman Chapel로 오시지 않으면, 1층으로 입장하실 수는 없습니다. 단... 중간에 한번은 자리를 옮기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6.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방에 식사를 하나요?  
2부제 식사를 실시합니다. 초록색과 빨간색의 meal card를 가지신 분들이 우선 식사하시고요, 파란색 meal card를 가지신 분들은 조원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다가 조금 나중에 해주세요.

6.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방에 식사를 하나요?  
2부제 식사를 실시합니다. 초록색과 빨간색의 meal card를 가지신 분들이 우선 식사하시고요, 파란색 meal card를 가지신 분들은 조원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다가 조금 나중에 해주세요.

6.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방에 식사를 하나요?  
2부제 식사를 실시합니다. 초록색과 빨간색의 meal card를 가지신 분들이 우선 식사하시고요, 파란색 meal card를 가지신 분들은 조원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다가 조금 나중에 해주세요.

6.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방에 식사를 하나요?  
2부제 식사를 실시합니다. 초록색과 빨간색의 meal card를 가지신 분들이 우선 식사하시고요, 파란색 meal card를 가지신 분들은 조원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다가 조금 나중에 해주세요.

### Thank You ! :) )

#### Daily Themes

월: Welcome

화: Root of Transformation  
수: Transformed, Beyond the ordinary  
목: Messengers of Transformation  
금: Into the untransformed world



# KOSTA/USA-2007 연차 수양회를 기대하세요

권오승 총무

KOSTA를 섬기다 보면, “KOSTA가 무엇이나”라는 질문을 참 많이 받는다. KOSTA를 만났지 12년째가 되는 필자로서도 어떤 의미에서 매우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KOSTA란 무엇일까, 무엇이 KOSTA를 KOSTA되게 하는가. 이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 딱딱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넘기며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여러가지 내용을 정리해보았을 때 사람들이 흔히 KOSTA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선입관과 매우 다른 KOSTA의 중요한 특징 하나를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KOSTA는 집회가 아니다”라는 것이다.

## 집회가 아닌 운동으로서의 KOSTA

많은 사람들이 KOSTA를 여름에 인디애나폴리스와 시카고에서 여는 집회로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KOSTA가 원래 추구하고 있는 가치와 다소 차이가 있다. 물론 KOSTA는 집회를 포함한다. 그러나 KOSTA는 집회라기보다는 KOSTA의 핵심가치(core value)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만드는 운동(movement)이다. KOSTA를 집회가 아닌 운동으로 규정(define)하는 것은 KOSTA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다고 우리가 믿는 소망의 내용 때문이다. 만일 KOSTA가 많은 사람들을 한곳에 모아 일회적인 집회를 통해 소부흥(mini-revival)을 경험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면 KOSTA는 집회로 규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KOSTA가 꿈꾸는 것은 KOSTA에 참여한 청년 학생들이, (1) KOSTA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에 동의하여 (2) 그 핵심 가치를 가지고 각자의 삶을 살 뿐 아니라 (3) 그 가치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들어 내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4) 그러한 일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주인되심을 인정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더 많이 만들어 내고 (5) 그들이 몸을 담고 속해 살고 있는 피조세계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이 선포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일을 가능하게 하는데 여름에 모여서 함께 하는 집회가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이 KOSTA의 모든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 집회가 아닌 KOSTA, 2007년에는

집회를 앞두고 왜 갑자기 집회가 아님을 강조하고자 하는가. 그것은 금년 주제가 갖는 특수성 때문이다.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을 금년 KOSTA/USA의 주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이다. ‘변화(transformation)’가 금년의 주제어이다.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변화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스도와의 만남으로 시작되는 성령의 일하심으로서만 가능하다. 그리스도인들조차 대량생산하고 싶어하는, 효율성을 중시하는 풍조가 덕으로 여겨지는 시대에 이 집회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 완전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으면 정말 감사한 일이겠으나, 우리가 그리스도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변화해 가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집회를 통해서, 코스탄들이 진정한 변화가 얼마나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가 하는 것을 깊이 인식 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어떤 이들에게는 그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는, 어떤 이들에게는 한단계 큰 도약을 하는, 어떤 이들에게는 새롭게 갱신되는 일들이 있기를 기도한다.

## 건강한 혼란과 무질서를 기대하자

집회를 전후하여 이번 인디애나폴리스와 시카고의 집회에 참석하는 코스탄들에게는, 결단의 기도 이전에, 뜨거운 찬양 이전에, 감격이 있는 말씀 이전에 올해의 주제를 붙들고 고민하는 일이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고민의 시작은 바로 혼란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혼란은 무질서이다. 혼란은 불확실성이다. 혼란은 미확정이다. 혼란의 상태에서는 아무런것도 기대할 수 없다. 오히려 혼란은 좌절하게 한다. 그런데 우리 자신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그런 혼란이 필요하다. 이런 혼란의 상태는 이 세대에서 벗어나기 위한 우리들 자신의 몸부림이 되어야 한다. 이런 혼란은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한 첫 삽이 되어야 한다. 이런 혼란은 변화의 열매를 맺기 위한 씨앗이 되어야 한다. 유진 피터슨의 말처럼, 창세기 1:2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니’의 혼란이 있어야 1:3 이후의 창조의 열매가 있는 것이다. 혼란으로 시작하여 열매와 결단으로 연결되는 집회가 되었으면 한다. 혼란으로 시작하여 새로운 마음과 창조와 질서로 끝맺음을 하는 코스탄들이 되기를 기도한다.

##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넘어서는 집회

그러나, 위에서 이야기한 여러가지 내용들이 그대로 이루어 진다 하더라도 그저 우리가 준비한 모든 것들이 순서대로 진행되어 우리가 예상한 것들만이 일어나는 집회라면 그것은 진정 우리가 바라는 집회의 모습은 아닐 것이다. 심지어는 위에서 이야기한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의 예측과 생각이 모두 잘못된 것으로 드러난다고 해도, 그것을 넘어서 더 크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포기한다면 이 집회의 주인공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을 놓는 잘못을 범하게 될 것이다. 진정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기를 갈망하고, 그러한 변화의 길에 들어서서, 다른 이들과 전 피조세계를 그 변화로 이끌어내는 KOSTA/USA-2007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 이번 집회를 통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실현되길 기도한다. †

## KOSTA in KOSTA -

# jjKOSTA

Jojang KOSTA, Jeja KOSTA, JustJesus KOSTA

**안**녕하세요, 코스탄 여러분들! 미국코스타 2007 집회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오늘밤이면 모든 분들이 앞으로 일주일간 지구상의 누구보다도 가깝게 지내며 마음을 나눌 조원들을 만나게 될텐데요. 어떡세요? 기대되지 않으시나요?

코스타의 하이라이트, 그 조별모임을 섬기시기 위해 우리의 조장님들은, 코스타 등록이 숨가쁘게 진행되는 순간에도, 조장 수양회를 통해 강훈련을 받으셨습니다. 주일 오후 2시, 찬양과 기도로 시작한 조장 수양회는 황지성 박사의 설교에 이은 이일형 박사의 두 번에 걸친 주제강의로 열기를 더해갑니다. 골로새 교회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도우심은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코스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주제 강의를 ‘일어나라’와 ‘듣고 외치라’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려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가짐을 설명합니다.

조장님들은 이 외에도 조별모임 예행연습과 기도, Wheaton College 투 어 등으로 조원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1박 2일 동안의 조장수양회를 통해 조원을 맞을 준비를 마친 조장님들. 그분들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조원 여러분들도 기대되지요? †



사설

# 코스타를 찾아온 그대들에게

**지**난 20여 년간 수많은 한인 청년들의 삶을 바꾼 코스타가 우리에게 다시 다가왔다.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 다양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많은 그리스도인 한인 청년들의 삶을 변화시켰고 교회와 청년 공동체의 갱신의 힘을 부어주었다. 동일한 하나님은 이 시대 이 곳의 한인청년들에게 또 다른 말씀을 주시길 원하신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청년들이 이곳 휘튼으로 모였다. 미주 전역, 북미주와 남미주에서, 천 삼백 여명이나 되는 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뿐 아니라 이 시대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기 위해서 코스타로 모인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좇아 코스타에 참석한 그대들에게 우리는 몇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코스타의 주인을 알자.** 코스타의 주인은 누구인가? 코스타에 참석하는 많은 강사들이 코스타의 주인은 아니다. 코스타의 준비하는 주최팀도, 코스타에 참석하는 많은 코스타들도 코스타의 주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오직 코스타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보이시고 그 뜻을 실현시키시는 하나님만이 코스타의 주인인 것이다. 열광적인 찬양과 다양한 강의를, 깊이 있는 조원들과의 영적인 교제 모두 귀중한 것이다. 그러나 이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면 그것들은 무의미한 일이 될 것이다. 코스타 기간 중 고요함 가운데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말자.

**둘째, 코스타의 역사와 핵심가치를 알자.**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태동한 코스타 운동을 쉬지 않고 이끌어 오셨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코스타의 핵심가치는 미주뿐 아니라 전세계에 퍼져 한민족 디아스포라 전체에 영향을 주는 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복음주의 학생 운동으로서의 정체성은 민족과 지역을 넘어선 새로운 복음 운동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말씀지향, 자원봉사, 선교지향, 연합의 정신은 우리에게 전해진 귀한 영적인 유산인 것이다. 이 영적인 유산을 이번 코스타 기간에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한다면 신앙의 성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코스타의 주제를 알자.** 각 해마다 하나님은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공급해주셨고 올해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라는 주제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비복음적인 가치관을 과감히 거부하고 내적인 갱신과 성숙을 원하시는 하나님은 코스타를 통하여 그 뜻을 발견하고 추구할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이 주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답을 찾는 사람들이 진정한 코스타를 경험한 사람일 것이다.

대망의 2007 코스타, 휘튼을 가득 채운 모든 참석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그리스도인의 소망을 마음 속 깊이 새기게 되기를 기대한다. †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 다양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많은 그리스도인 한인 청년들의 삶을 변화시켰고 교회와 청년 공동체의 갱신의 힘을 부어주었다 동일한 하나님은 이 시대 이 곳의 한인청년들에게 또 다른 말씀을 주시길 원하신다

## 사설연재

**사설 1**  
코스타를 찾아온 그대들에게

**사설 2**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영적 부흥을 기대하며

**사설 3**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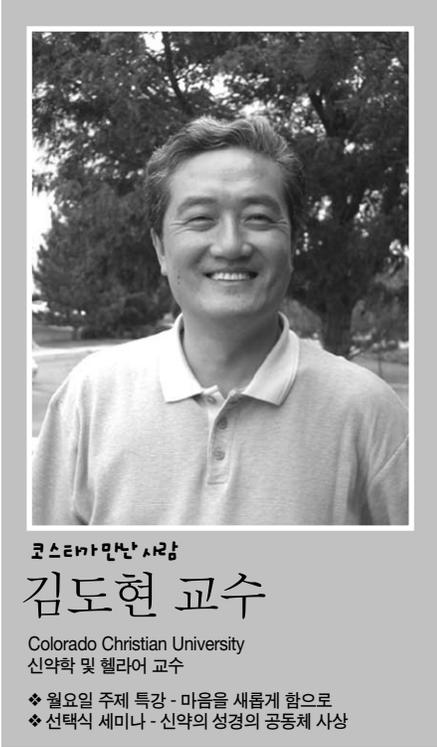
**사설 4**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  
-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사설 5**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

## \* 알려드립니다

1. 교재 내용 정정  
- QT 화요일과 수요일이 바뀌었습니다.  
화요일 아침 QT는 골3:1-4, 히11:3입니다.  
- FC 220 황혜리 교수의 강의요약안 수정합니다.  
(강의시 handout 참조)
2. 세미나 정정:  
- 이일형 (TH350 예배), 김동호 (TH101 성경의 이해) 목요일 취소  
- 강사변경: 고태형 (FC140 자녀교육) → 고종미 사모

3. 상담실 안내  
- 상담 신청을 오늘 저녁 5-7시에도 받습니다.  
- 오늘 저녁 그룹 상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진로상담: Evans Hall 3층 라운지 (조별모임 후 저녁 11시)  
이성교제 및 배우자 상담:  
Evans Hall 4층 라운지 (조별모임 후 저녁 11시)



**유** 난히도 강한 햇볕이 내리쬐는 6월 어느 주말 덴버의 작은 신학교 교정. 코스타 보이스는 2007 KOSTA/USA 월요특강을 맡은 김도현 교수를 만났다. 로마서 12:1-2을 중심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Renewing the Mind'라는 제목을 통해 코스타 올 주제를 개괄하여 전해 주실 김도현 교수를 미리 만나보자.

**1. 간략하게 자기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Denver에 있는 Colorado Christian University에서 신약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미국장로 교소속 목사입니다. 결혼한지 18년 되었고 세 자녀가 있습니다. 청년시절을 이민교회인 나성 영락교회에서 훈련받으며 보냈습니다. 그 당시 신학교에 유학하고 계셨던 송영선목사님(그 때는 전도사님)이 지도하고 계셨는데, 그 때의 대학부 생활은 귀한 신앙의 자산이 되었습니다.

**2. 교수님은 로마서를 전공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코스타의 주제인 로마서 12장 1~2절이 갖는 중요성에 대해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2장 1-2절은 사도바울이 전개하는 11장 이후의 장들 (12-16)에 대한 thesis이기 때문에 이 구절들의 이해없이 그 다음의 내용을 이해할 수는 없지요. 다시말해 12:1~2절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1-11장들의 전체적인 신학적인 주제들이 12-16장의 실제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 수 없다는 말이지요. 그러므로 이 두 구절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로마서 전체의 이해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3. 이번 코스타의 특강을 통해 기대하시는 것과, 코스타에 대해 바라는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사실 저는 코스타에 대해 많이 들었지만 한 번도 참석도 해 보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특강을 맡게 되어 어리둥절한 마음이 있었지요. 사실 "이거 유명하신 분들이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 보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제 자신이 많이 배우고 깨우치기를 원합니다. †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현장스케치 >>  
**코스타 기도팀**



**마** 가복음 9:14~29절에는 예수님께서 한 아이를 고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새로운 몸을 입으신 예수님을 목도한 제자들이 산을 내려와 제일 먼저 접한 현상은 귀신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있는 다른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십시오"하면서 간청하는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예수님은 '하실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답하십니다. 그러자 그 아이 아버지는 큰소리로 "내가 믿습니다. 믿음을 내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고쳐주셨는데, 그 이후에 제자들이 "왜 우리는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하시며 하신 말씀이 바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였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될 수 없음을 알고 '기도 해야지' 하지만, 막상 코스타 기간 내내 조별 활동과 세미나 등 프로그램을 따라가다 보면, 실제로 기도하는 일에 소홀해 지기 쉽습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인 기도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코스타 기도실이 도와드립니다.

**1. 혼자 기도하나요? 조별로 기도하나요?**

물론 혼자서도 기도하실 수 있고, 조별로 기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리내어 기도하실 수 있는 공간과 침묵으로 기도하실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2. 언제 어디서 기도할 수 있나요?**

기도실은 두 곳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 본당 뒷쪽 (Edman chapel): 조별기도실(헤리티지 룸), 개인기도실 3개
- 식당지하 (Beamer center 지하): 조별기도(Phelps), 개인기도(Phelps, 소리내어 기도), 침묵 기도 (Gold star chapel)

**3. 먼저 장소 예약을 해야하나요?**

Beamer center 지하의 침묵기도실과 개인기도실은 열린 공간이며 예약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조별기도실(본당과 식당 모두)과 애드먼 본당에 있는 개인기도실은 예약하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